

만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정신 등을 기리고자 마련된 '제6회 만해축전'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향했다. (관련기사 13면)

특히 이번 행사는 만해 스님 열반 60주년을 맞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와 강원도,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스님들과 불자들은 물론 문인, 학생 등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8월 12일 오후 6시 만해사 주지 삼조 스님의 입재를 알리는 다종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만해 스님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때일수록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묵전의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진리에 있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만해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백학간두에서 한발 더 내딛는 용기임을 명심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하일라이프인 제8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의장 법타 스님(실천부문), 소설가 황석영(문학부문), 데이비드 맥켄 미 하버드대교수(학술부문), 임권택 감독(예술부문)이 상을 받았다. 특히 창작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평화부문 수상자인 벨스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시드니 바파나 쿠베카 주한 남아공 대사가 대신 받았다.

한편 이번 축전에는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건봉사 주지 도후 스님,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 등 불교계, 그리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 김진선 강원도지사, 손학규 경기도지사, 박찬종 前 국회의원, 이인제 의원 등 정계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대회 시작 전인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인 신경림, 민영, 신달자, 정갑별, 소설가 전상국 등이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비롯, 원로 서예가 여초 김응현씨도 일제강점기 현장에 도착해 참가자들과 시간을 함께 했다.

# '님의 뜻' 이어 상생의 세상을...

## 만해축전, 불교·문화·정계 인사 등 1천여명 성황



만해 스님 열반 60주년을 기념해 제6회 만해축전이 8월 12~15일 만해마을에서 열렸다. 사진은 제8회 만해대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쿠베카 남아공 대사 부부, 평불협 의장 법타 스님, 황석영 작가, 데이비드 맥켄 교수 부부, 임권택 감독. 사진=김주일 기자

**법타 스님·황석영·임권택 씨 등 만해대상 수상 영예**  
**예술가 33인 만해詩 소재로 서화작품展... 기획 신선**  
**통일시전·님의 침묵 서예대전·백일장 등 행사 다채**

입제식에 앞서 거행된 '제6회 만해시인학 교'에서 이근배 교장(시인)은 "만해 스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 사상은 비록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정신은 우리 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를 창작하는 의미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시인학교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 기간 내내 이곳 '만해마을'에서는 '만해시화전' '통일시전' '님의 침묵 서예대전' '전국고교생 백일장' 등도 동시에 열려 이번 행사는 '만해문화박람회'를 방불케 했다. 실제로 '만해사' '문인의 집' '만해문

학박물관' 등 만해마을의 어느 곳에건 만해 스님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고개만 돌려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예술가 33인이 만해의 시를 소재로 한 서화작품을 모아놓은 '만해시화전'은 참가자들의 발길이 잦은 '만해사' 1층 로비를 전시장으로 활용해 관람객들이 마치 미술관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평할 만큼 신선한 기획이었다. 이외에도 만해문학박물관 입구 외벽에는 '통일시전'이 열려 안도현의 '기러기가 발해 가자' 등 통일의 염원을 담은 시와 그림을 새긴 30여점의 동판(銅板) 작품들도 전시해 놓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만해축전에 참가했다는 이선미씨(45, 서울시 양천구 목동)는 "지난해에는 만해마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돼 아쉬운 분위기였다"며 "정돈된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심신 활용한 이번 행사에서는 만해 스님의 다양한 업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즐거워했다.

13일에는 하버드대 국제비교한국학회 주최로 '비교문학심포지엄'과 축전 대동축구대회, 전국고교생백일장, 청소년 댄스대회 등이 펼쳐졌다. 또 14일에는 현대불교문인협회의 '불교문학심포지엄', 광복절인 15일에는 광복절 기념식과 백담계곡 전국하프마라톤대회, 학생씨름대회 등 다채로운 체육 행사들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처음 개최돼 민생하는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백담사 만해마을=김주일 기자

'불일 부부의 경우 체세포 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유가의 효년법과 생생불이(生生不巳)의 관념, 그리고 생리적 유주관에 부합된다'(김병환의 '유가철학에서 본 인간복제')거나 '신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명(命)의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배아를 인간생명 자체로 확대해서 보기는 어렵다'(민영현의 '배아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선적(線的) 이해'는 내용들로 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배아 복제가 과연 생명윤리로 진행되느냐 자원의 활용에 이용되느냐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생물학계, 의학계 학자들은 "생명윤리 문제를 들어 배아 복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였던 종교철학자들이 제한적인 허용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인간배아 연구를 통한 의학, 생활학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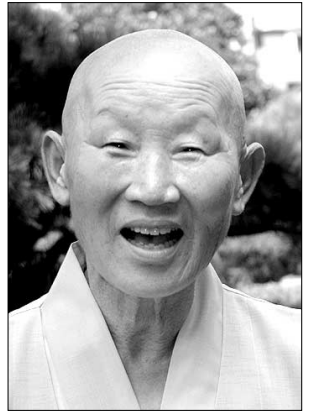
# 한국의 비구니 스님 <20> 지광 스님

## 국내 비구니 포교사 1호

"출가자가 산문을 들어서면 수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을 세우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오로지 포교를 위해 불문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삼선포교원 지광 스님(71·사진)이 마흔이 넘어 출가를 결심했을 때 머릿속에는 오로지 포교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

지난해 고회를 넘긴 스님은 한때 '페스타로치' 같은 교육자가 되려고 했다. 불문에 들기 전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스님의 이력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 북한산 자락의 흥은동 유막에서 수행하던 무공 스님의 인연으로 출가를 결심했다. 송광사 보성 스님의 소개로 육천 문수암에 계시던 법회 스님을 은사로 모셨다. 그때는 늦은 출가 탓에 얼른 계를 받아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스님은 "지금 생각하



포교당을 세웠다. 당시 불교계 현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81년 삼선포교원의 개원에 자금을 받아 구룡사, 능인선원 등이 현대식 도심 포교원이 잇따라 생겨났다. 삼선 포교원은 우리나라 대형 도심포교원의 효시라고 평가받고 있다. 82년에는 이곳에서 비구니 1600명이 모여 첫 전국비구니 대회를 치르기도 했다.

## 25평짜리 월세에서 시작 대형 도심포교당 첫 설립

먼 불가를 너무 모르고 무작정 포교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시절"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지광 스님은 우리나라 비구니 포교사 자격증 1호다. 당시에는 법사에 앉아 설법하는 비구니가 없었던 시절이다. 1978년 신도들과 함께 25평짜리 월세방을 얻어 처음 포교당을 열었다. 그 시절 스님은 신문과 잡지는 물론 각 분야의 수많은 책들을 모두 읽고 난 후, 그날 법문 할 경전내용을 미리 정리해 야만 법석에 올랐다. 인화라고는 등사지를 굶어 먹는 '가리방'이 고작이던 시절에도 꼬박꼬박 법문 내용을 정리해서 신도들에게 미리 나눠 줬다. 꼼꼼하면서 자상한 스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다. 아무리 낮은 근거의 불자라도 스님의 법문을 7~8년 들으면 <법화경> 한권을 다 읽을 정도로 법문준비에 정성을 다했다.

열 달 뒤 신도가 늘어 100평 법당으로 이사를 했고, 또 14개월 후에는 지금의 삼선동 도심 한 가운데 탑주 양식의 3층짜리 대형

진천 보암사 불사를 시작한 것은 15년 전으로 불자들이 자연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참배객이 많아져 연간 10만 명이 다녀간다.

포교하는 스님들을 길러내기 위해 최초의 통학 비구니 강원을 세웠고 현대식 도심 포교당도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남들은 염두도 못내던 시절에도 산사음악회를 열었던 스님은 한때는 해춘 스님을 따라 전국비구니회의 소임도 맡았다. 30년 가까이 전국 어디고 안간 곳 없이 불종자(佛種子)를 심기 위해 정진없이 뛰어 다녔다. 젊은 스님들에게는 늘 자기를 희생하고 하심하라고 가르친다.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시대가 아니라 무엇인가 주는 것으로 신도들을 감화시켜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하는 지광 스님.

"스님의 일이 뭐 있지? 신도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신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스님 할 일이지." 조용수 기자

# "2주까지 배아복제 가능" 불교관점 눈길

## 생명윤리학회, 유불선 입장에서 조명... "제한적 허용" 한목소리

"불전의 태아관에 의하면 2주까지는 인간의 기능태이인 인간체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2주 까지의 배아연구는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인간의 고통을 제거한다는 불교적 대의에서 배아연구를 통해 난치병과 불임치료 등을 할 수 있다면 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8월 11일 영국정부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의학 연구 목적의 인간배아 세포 복제를 승인한 가운데, 불교적 관점에서 2주 이전의 인간 배아 연구가 조심스럽게 허용돼야 한다는 불교학자의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8월 10~11일 부산 동아대 승학캠퍼스 교수회관 3층 동시통역실에서 열린 '2004 생명윤리 학술회의'에서 광만연(동아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의 입장에서 본 배아복제의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불경의 태아관을 근거로 2주 이전의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배아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 불교적 근거를 제시했다.

'인간 배아연구와 한국의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불교계 뿐 아니라 유불선의 입장에서 본 인간배아 문제가 폭넓게 다루었다.

수행도지경, 불설포태경 등에 대한 태아관과 현대야동학, 현대발생학 등의 비교 연구로 관심을 모은 광교수의 논문 외에도 이날 발표된 유불선 종교철학자들의 입장은 인간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 입장을 조심스럽게 취하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부터 얻는 잠재적 이익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비해 높은 경우에 한해서 까다로운 규제를 통해 공개적인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김중갑(동아대, 불교에서 본 배아복제-연구설과 무아설을 중심으로)

# 2004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법패)를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4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끈기 있게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법패·요장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승수 -

## 1 모집학과

학 과	교육 내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제의식 (점안 및 재공의식)	20명	1년
연구과정	요장, 작법, 인차비 등	10명	1년

##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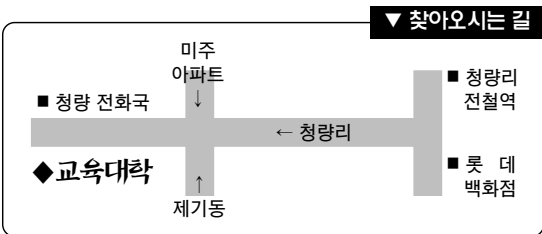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4년 7월 22일 ~ 8월 24일  
▷ 개 강 : 2004년 8월 25일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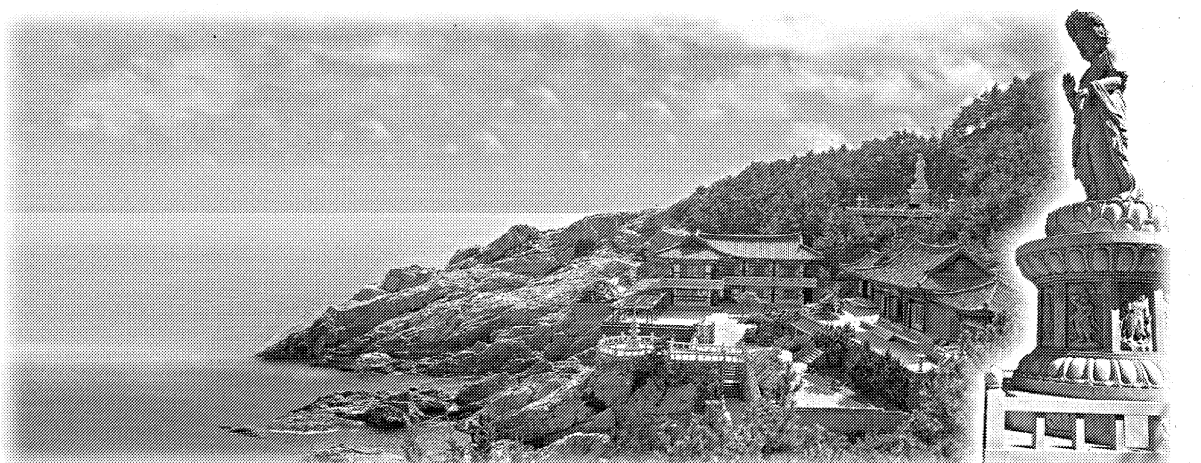
## 6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02)967-7093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동웅공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웅공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웅공사**  
전화: 051) 722-7744, 7755